CAVE身体アート



鈴木可奈子 松田孝子 橋本真奈

奥中 章人 高杉 悦生 深澤 孝史 森 妙子 丹羽 勝次 長船 恒利 岐部 琢美 寺田 篤正 山本 晴康 マツダ・イチロウ 乾 久子 日下 文 小林 由季 鎌田 和直 鈴木 真弓 瀬川 明子 Jellyfish 鍬竹 智広

2006年 5月11日 7月9日

GALLERY CAVE

Catalogue "CAVE BADY ART" 2006

Publisher: GALLERY CAVE

カタログ "CAVE身体アート展 記録集" 2006年

発行元:ギャラリーCAVE

奥中 章人 OKUNAKA AKIHITO

「WORLD-cave-hunan」 鉄 (滞在公開制作)







11

Catalogue "CAVE BADY ART" 2006 Publisher: GALLERY CAVE カタログ "CAVE身体アート展 記録集" 2006年 発行元:ギャラリーCAVE



Catalogue "Activity Log of Gallery Artfeti "2009 Limited Edition 400copies Publisher: Gallery Artfeti

カタログ "アートフェチ活動記録集" 2009年 400部限定発行 発行元: ギャラリーアートフェ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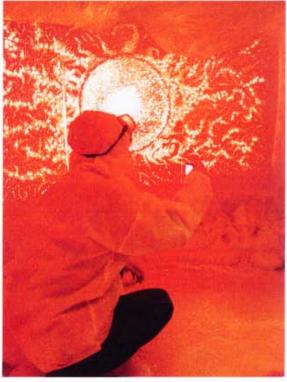
2008.1.26-2.17

静岡を中心に活動する奥中章人が2004年から続ける、世界と自分を繋ぐものや他者と自己との関係性を表出しようとする「world」を、平面、立体、映像などインスタレーションで展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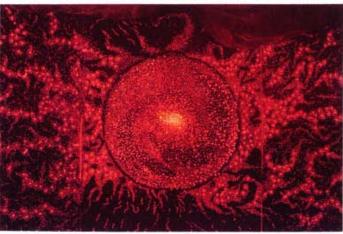




「world - dive to the sunset-」 インスタレーション シリコン、ポリウレタン、ポリエチレン、 スライム、プロジェクター、木、布、DVD







44

Catalogue "Activity Log of Gallery Artfeti "2009 Limited Edition 400copies Publisher: Gallery Artfeti

カタログ "アートフェチ活動記録集" 2009年 400部限定発行

発行元:ギャラリーアートフェチ



Catalogue " Toride Art Project 2008 " 2009 Publisher: Toride Art Project Executive Committee カタログ "取手アートプロジェクト2008 記録集" 2009年 発行元: 取手アートプロジェクト実行委員会

奥中章人

AKIHITO OKUNAKA

(world-danchi) (world-grass ground) 4m近い巨大な銀色の球体が、特殊な弾力を備えた巨大なゼリーのようにたゆたう(world-danchi)。1本のステンレス線からなるこの作品は、団地の中で住民と交流しながら編みあげられ、その様子はいつの間にか日常の風景の一部となっていた。来場者は球体の中に入ることができ、触る、揺らすなどしていつもと違う方法で、人と人、場所と場所とのつながりを意識した。同様にしてつくられた1mほどの小型の球体は、来場者の手で自由に団地中を転がりまわっていた。

(world-grass ground)は、筒状に編みあげられた錆びた針金が広場の風景と同化するように配置された。来場者がその存在に気づいたときにはすでに作品に囲まれている。集まってきたこどもたちは、錆び汚れなどを防ぐことができる白い「特殊強化服」を着用して自由に遊びまわっていた。







(world-danc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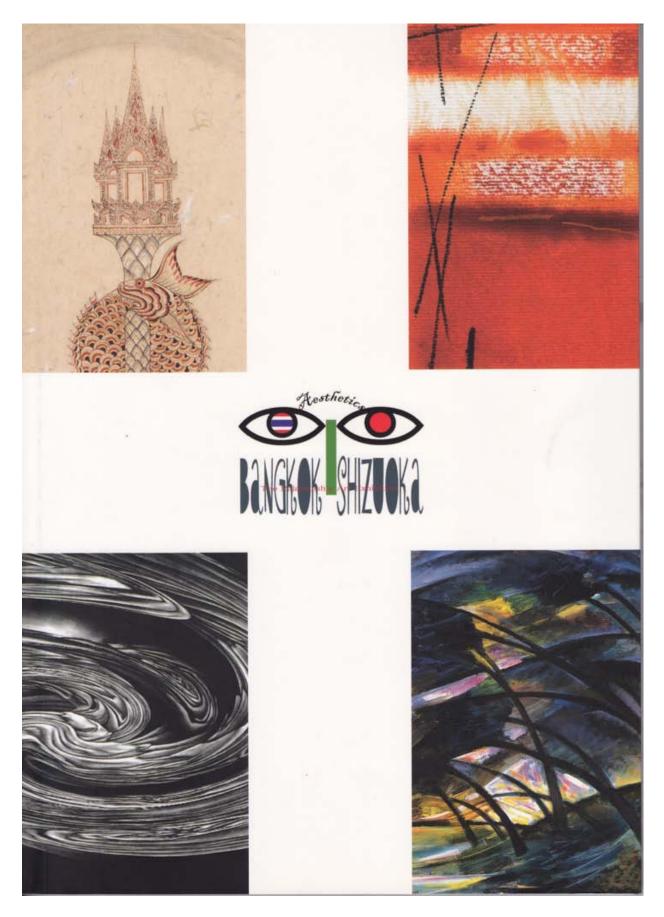
(world-grass ground)



TORIDE ART PROJECT 2008

23

Catalogue " Toride Art Project 2008 " 2009
Publisher: Toride Art Project Executive Committee
カタログ "取手アートプロジェクト2008 記録集" 2009年
発行元: 取手アートプロジェクト実行委員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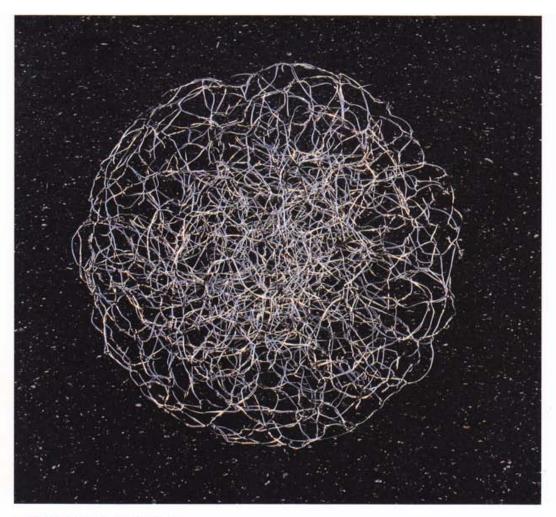


Catalogue "BANGKOK-SHIZUOKA AESTHETICS" 2008 Limited Edition 1000copies

Publisher: Silpakorn University

カタログ "バンコクー静岡の美学展・記録集" 2008年 1000部限定発行

発行元:シルパコン大学



OKUNAKA Akihito, WORLD -10µstainless steel, 60~100 x 60~100 x 60~100 cm., 2008

Concept

In my experience, the connection between ourselves and the world (outside our mind) is one to one, no matter how big the world is.

That is because the world is only our recognition that enables us to integrate the world movement affairs on our own so that we could see the world as one.

But in fact, we usually see the superficial phenomena in the world that remind us of our everyday lives.

Each of the phenomena has a name and is categorized, and, of course, each of the categories has a name, too.

When you see the world as being made of these superficial phenomena, you will feel the world is too big and too complicated to be able to sense it easily.

But I do not believe that is true.

I can see the world movement as a living thing, and that everything that moves in the wholeness of the world

This is the point I would like to make in the next work of mine, hopefully with you.

16

Catalogue "BANGKOK-SHIZUOKA AESTHETICS" 2008 Limited Edition 1000copies
Publisher: Silpakorn University

カタログ "バンコクー静岡の美学展・記録集" 2008年 1000部限定発行

発行元:シルパコン大学



Catalogue " < OPEN STUDIO 5 > by NATIONAL ART STUDIO, GOYANG " 2009, Publisher: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Limited Edition 700 Copies カタログ"<第五回オープンスタジオ> ゴヤン国立美術スタジオ" 2009年 発行元: 韓国国立現代美術館 7 0 0 部限定発行



Catalogue " < OPEN STUDIO 5 > by NATIONAL ART STUDIO, GOYANG " 2009, Publisher: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Limited Edition 700 Copies カタログ"<第五回オープンスタジオ> ゴヤン国立美術スタジオ" 2009年 発行元: 韓国国立現代美術館 7 0 0 部限定発行



Catalogue " <OPEN STUDIO 5> by NATIONAL ART STUDIO, GOYANG " 2009, Publisher: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Limited Edition 700 Copies カタログ "<第五回オープンスタジオ> ゴヤン国立美術スタジオ" 2009年 発行元: 韓国国立現代美術館 700部限定発行







고 장소 특강성 작품으로 관립적이 김자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참소(i) And I finds interactive committenes made by installing my work in a stetChis time it is Art 적용은 그만을 이르센터에서 전시현점) 한대시 인터메디브인 상황을 만든 Center Grantisp) to work for the sensorial experience of observers as a site-specific work.

Catalogue " < OPEN STUDIO 5> by NATIONAL ART STUDIO, GOYANG " 2009, Publisher: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Limited Edition 700 Copies カタログ "<第五回オープンスタジオ> ゴヤン国立美術スタジオ" 2009年 発行元:韓国国立現代美術館 700部限定発行







MATCHES. 400 v 400 v 258 cm

400 × 400 × 250 cm

나는 의 장소의 역동성을 더롭기 위벽 나의 모든 작품들을 이미로 단자 중입에 ... I made all the work in the center of the apartment complex to grope about MF 요나 워크샵을 개위했다. 제구하면 이곳에 시는 사람들의 일상성철과 하나의 중 나는 이때트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환경과 우리의 관계를 내면으로부터 볼 수 있도록 할시 그물로 만들어진 구체를 완성했다.

설치하였다. 나는 매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활동으로 메이힌 - dynamism in this place. And everyday I held a making show or workshops in # action of a connecting people who live there. That is because I found a safe. 로 그물을 따는 내 학업이 같은 구주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다지막으로 Structure that connecting relationship in my everyday action and knitting a RF by one single line. Finally I built a sphere of the steel net to let apartment pools!" see our living environment and our relationship from the inside







의 작용은 오래된 경찰서 건물 202호실에 있는 장소 목정 선 작품이다. 나는 흰색과 화란색으로만 미루어진 고요하 고 깨끗이 집혼한 방 전에 매우 복잡하고 오래되어 보이 는 거미물을 설치함으로 관합지율에게 모순을 느끼게 했 다. 이 작용 또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졌으며 관람책들 이 작품 안으로 들어갈 수 되게 되어있다.

This is my site-specific work inside this room No 202

I installed a very complex rusty web in this quiet and tidy room has white and blue color brily to let observers make the inconsistency.

This work also made by one line and observers could step on my wark inside

World - 202

600 × 300 × 250 cm

860 x 300 x 250 pm

Catalogue " < OPEN STUDIO 5> by NATIONAL ART STUDIO, GOYANG " 2009, Publisher: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Limited Edition 700 Copies カタログ "<第五回オープンスタジオ> ゴヤン国立美術スタジオ" 2009年 発行元:韓国国立現代美術館 700部限定発行



Catalogue "Arita Contemporary Art Garde Place" 2010 Publisher: Arita Contemporary Art Garde Place 2010 Executive Committee カタログ"有田現代アートガーデンプレイス記録集" 2010年 発行元: 有田現代アートガーデンプレイス 2010実行委員会、ARITA-mobile

奥中章人 京都ノインスタレーション

私はこの世界を形作している「動的な要因」を探求している。 されは全ての人と、物事、事象に起きる必然的な偶然や天体の敬差運動のような 相互作用を生む要因である。即ち、世界の中の世界である。 2009 / OpenStudio5th / IASK Goyang Studio / Korea 2009 / 1 の 5 人の時間展 / 静岡県コンペンションアーツセンター"グランシーフ" / 静岡 2008 / 取手アートフロジェクト 2008 "団地モレジテンス" / 取手市井野田地 http://www.world-akihito.com/





富名工門窯はしばしば一富」の字が富名工門窯を振興すべく立ち上がっ定着工門窯を振興すべく立ち上がった美術家たちが、有田焼の仮面を付けて変身!「陶磁氣戦隊トミエモンジャー」となる。有田の土地に潜むがイナミズムによって生み出すべく、カイナミズムを集約した球状の知覚がイナミズムを集約した球状の知覚がイナミズムを集約した球状の知覚がイナミズムを集約した球状の知覚がイナミズムを集約した球状の知覚がイナミズムを集約した球状の知覚がイナミズムを集約した球状の知覚がイナミズムを集約した球状の知覚がイナミズムを集約した球状の知覚を開発を表していった。

world-pliable 知覚彫刻 (sensorial sculpture) 60×60×60~120×120×120 (variable) /アルミニウ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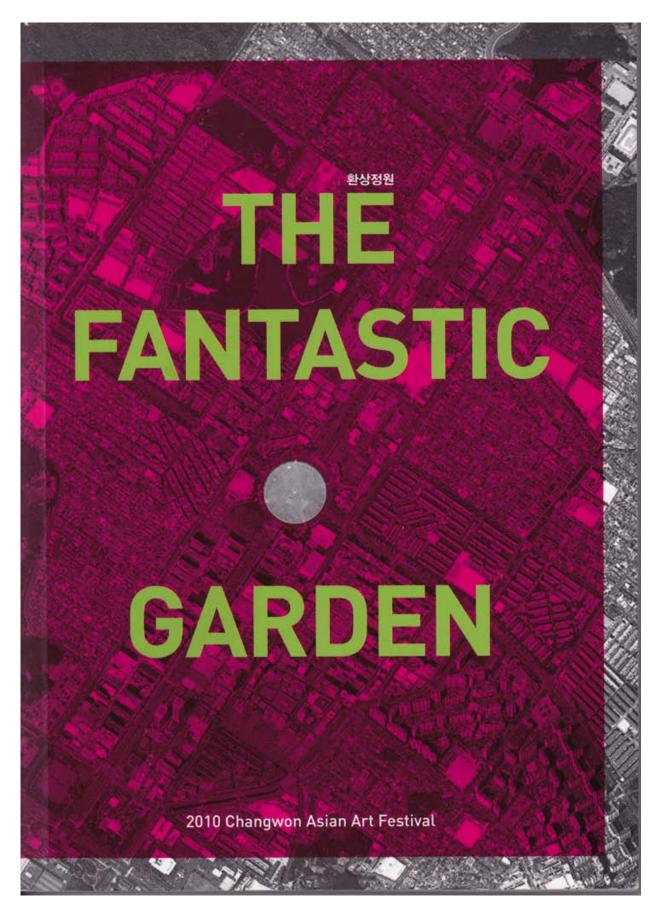






38

Catalogue "Arita Contemporary Art Garde Place" 2010 Publisher: Arita Contemporary Art Garde Place 2010 Executive Committee カタログ"有田現代アートガーデンプレイス記録集" 2010年 発行元: 有田現代アートガーデンプレイス 2010実行委員会、ARITA-mob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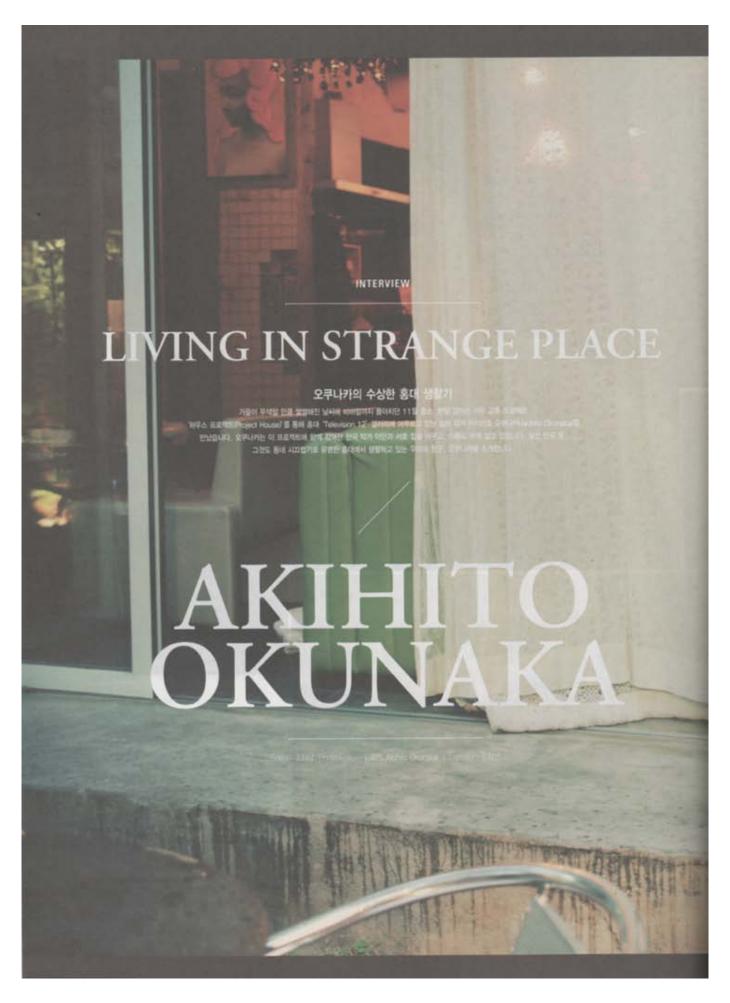
Catalogue "THE FANTASTIC GARDEN" 2010
Publisher: Changwon Asian Art Festival Operation Committee カタログ" THE FANTASTIC GARDEN" 2010年
発行元: チャンヲン アジア 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 実行委員会



Catalogue "THE FANTASTIC GARDEN" 2010
Publisher: Changwon Asian Art Festival Operation Committee カタログ" THE FANTASTIC GARDEN" 2010年
発行元: チャンヲン アジア 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 実行委員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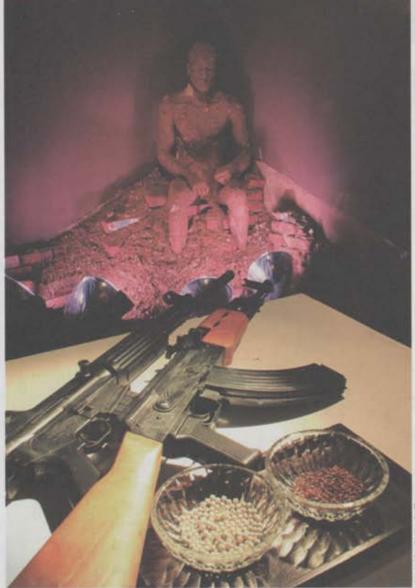
Review "F.OUND, issue #4 DES" 2010, Publisher: FOUND MAGAZINE レビュー "F.OUND 4号12月" 2010年 発行元: FOUND MAGAZINE



Review "F.OUND, issue #4 DES" 2010, Publisher: FOUND MAGAZINE レビュー "F.OUND 4号12月" 2010年 発行元: FOUND MAGAZINE



Review " F.OUND, issue #4 DES" 2010, Publisher: FOUND MAGAZINE レビュー "F.OUND 4号12月" 2010年 発行元 : FOUND MAGAZINE





Space Project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아키하도 오무나카입니다. 지금은 '하우스 프로젝트' 보 서울 홍대 끊러리 'Television 12'에서 전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작년 고양시에서 진행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는데, 그리 한국 작가 이단을 만났습니다. 이단과 저의 작품 활동에는 비슷한 점들이 많았답니다. 특히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나 사물, 장소에 대한 관계성에 주목했는데, 이러한 공통점으로 이단가 저는 한빛교류 전용 추천하기로 마음막었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선 프로젝트를 진항할 결러리가 한국과 일본에 있어야 했고, 전시 진행비도 필요했죠. 이단과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여 한껏 들았던 저는 결국 부산을 떠나 배를 타고 오사카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때마침 일본으로 가는 배 위에서 한쪽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얼리는 심포지엄에 관한 소식이었지요. 오시카에 도착 하자야자 바로 다음날 참가한 실모지함에서 이번 프로젝트 製墨 提出到 'Alternative Space FLAT' CIRE 新以早計明算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일고모 1세였던 하나무라씨는 한국 예술계에 관심이 아주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국의 마을회관 되한 이용되었던 보인 소요의 공간을 결과리로 쓸 수 있게

도망했죠. 이 공간 또한 서울의 Television 12 처럼 낡은 주택을 계속한 곳이었습니다. 이단과 저는 HH로 이 "집House" 이라는 공간의 의이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젝트 기회을 시작했죠. 이단은 갤러리 이전에 집이었다는 사실과 그 공간에서 지냈던 사항들의 기억에 휴이를 가졌습니다. 저는 집이었던 공간의 변화에 집중했어요. 갤러리 Television 12는 오래된 주력을 1층의 카메뉴 2층의 설러리로 리모델링한 공간이기에 공간 현태의 사고우 변화에 있을 사용제 생겨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는 1층 카메의 손님들을 다성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죠. 그들이 인터뷰 중 카메의 공간에 많아있는 오승을 그대로 2층 갤러리 벽에 이미지화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인터뷰 중 언급한 자신의 집을 직접 그리도록 됐어요. 여기서 홈비로운 건 'House'와 'Home'의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있도 행단 건 분명 'House', 즉 공간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Home'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거죠 '집'이라는 계념보다 '가장'이라는 사람 간의 관계와 어울림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점주부처럼 분장을 하고 사람들과 인터형를 한 이유이기도 해요. 'House' 하면 채일 먼저 '엄마'가 떠오르니까요.

Mission Project

이단과 저는 '프로젝트 하우스' 진행 도중 즉석으로 서로에게 이선을 과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선 그대로를 수행하는 퍼로 면스를 영상으로 기록해 전시장에서 플레이앤츠, 우리는 속당 이나 관용구 등을 영어로 반역해 상대 작가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숨겨진 뜻이나 의미는 배제한 채 말이죠. 제가 수행한 마선 중에서는 "종루에서 뱀 맞고 원강 가서 눈 흘긴다" 라는 한국 속당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종료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병을 대리달라고 부탁한 후, 한강으로 같죠. 그런데 한강명 눈 즐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구요. 그래 생각 됐어요. '아는 한참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종류에서 병용 맞아 화가 나더라도 사람이 없는 한강에 오면 기분이 불린다는 의미연구나 하고 말이죠. 혼자 마션을 행동으로 몰기 면서 의미를 참작하는 건데~ 등에 의미는 전혀 다르더라구요. [옷용] 이단에게 제가 준 미선 중 하나는 큰 소용을 일으켰어요 일본 속당 중에 '단 등에 등 보기'라는 많이 있는데 한국 속담의 '언 W에 오줌 누기'와 의비가 비슷하죠. 이단이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공원 한가운데에서 짧에 불을 피운 가예요. 주민들이 신고하고 경찰하지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집에서 했어도 되는 일이었는데 많이죠. (웃음) 아티스의들은 작품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누구의의 교류 없이 대부분 작업실에 들어 박혀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않아요. 그래서 이단과 저는 우리 에게 이런 디션을 수행하는 일이 번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했어요. 이러한 미선 수행을 하려면 주변 사람들과의 커뮤니 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겪는 소통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여겼거든요. '수절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라는 속당 미션을 위해 인사동물

62 F.OUND





실상이 위치 것을 구해 쓰고, 긴 수업을 붙이고는 존하스를 역기도 했어요. 양반처럼 이주 무이하게요. 중이에 쿠리 호칭을 강바 취접 만든 낮과 "기자가 쓰인 중이를 들고 한 시랑 한 사랑을 붙잡고 불었어요."이 글자가 무엇인지 일반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시민들이 "기자를 마주 중 않더군요.(웃음)

Earth-Shoot the Piece of the Peace

결관리에 설치된 이 작품은 관객이 직접 체험을 통해 감상할 수 있어요. 비비판 총당 안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안에 씨앗을 넣어 흙으로 만든 사람들 쏘는 거예요. 그형 이 총말은 흙에 박하 박을 피우죠. 저는 관객들이 직접 흙으로 만든 사람 오형을 용으로 겨누면서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길 원했어요. 총율 개념으로써 느끼는 위화감을 통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보길 바란 거죠. 이 작물의 비비판은 자연히 녹아 없어지는 진환경 소재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성명과 목적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받으면 하는 의도였어요. 이 설치 작품은 필본에서도 전시된 작이 있었어요. 일본의 몇몇 관객들은 총을 쓴다는 형위 자체에 거부감이나 불쾌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 작품을 한국 갤러리에서도 설치 전시 중인데. 여기서 한국 관객들과 일본 관객 반응의 재미있는 화이점을 발견했죠. 일본 관객들은 총을 쓸 때 모두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늘 듯 했어요. 그런데 한국 관객들은 총을 쓰는 자세가 판박했어요. 군대의 강형 때문인지 자세도 멋스럽고, 골장의 진지하다라구요.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만든 사람 몸에서 무축무충한 새벽이 자라기 시작해요. 목력의 수단인 총일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수단으로 변화하는 거죠. 이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왔으면 좋겠네요.

이묘한 삼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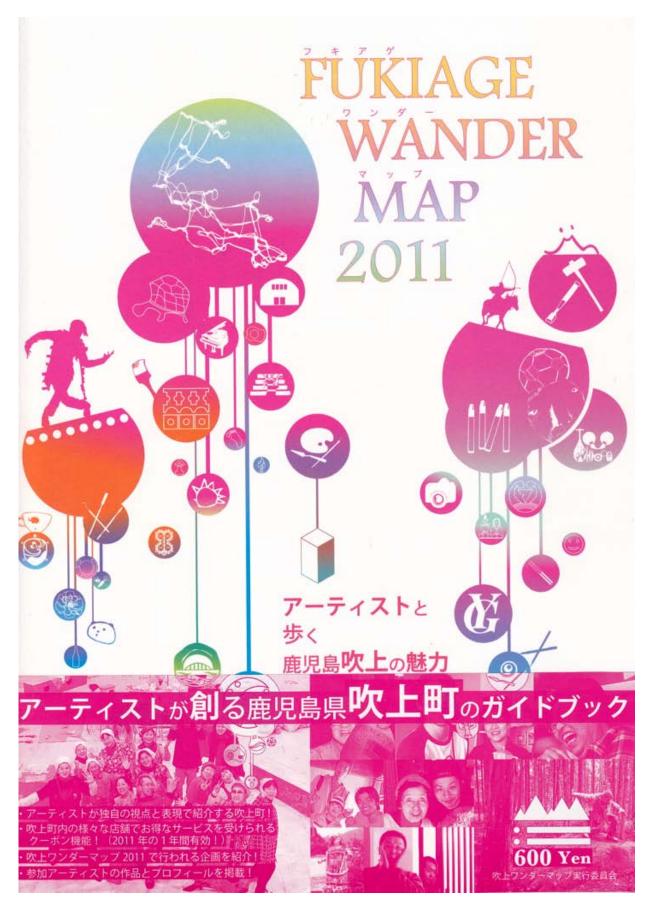
적단 고양 아티스트 레지던시로 한국에서 자부전서, 함께 생활 했던 육일 작가와 휴대에 자주 늘려와 술을 마셨어요. 고양 사원는 정말 프랑라고 심심했거든요. 친구와 함께 휴대에서 술을 마시다 배스가 경기면, 독일 친구는 함상 "팀질반 가지"라는 말을 함죠. 그 친구와 처는 "팀질방은 모든 나라에 있어야한다"고 소리치에 다닐 정도로 팀질방을 좋아했어요. 이런 그 독일 친구를 생각하면 자건스럽다. "팀질방'이라는 단어가 연상 되요. 한국에 대한 제의 폭명한 관심도 이런 연관성에서 사하렴죠. 바로 "미요한 삼각관계 라는 발로부터요. 이 많은 일본어와 한국에가 말음도 감고 뜻도 비슷해요. 한국과 일본 사이와 국경을 초필하는 무엇기가 있을 가만 막연한 생각이 들었죠. 세가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관계에요. 여러 가지 맛물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됐어지는 관계를 많이죠.

한국, 두 번째 굿바이

흥대의 첫인상이요? 음액과 숲, 그리고 모사용이 남자는 굿이죠. 주말 늦도록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제가 바로 그 중에 한편이기 때문에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웃음) 확실히 불은이들의 에너지가 남치는 곳이기도 하죠. 홍대는 채로 오픈한 가계들이 없다 인가서 흔적도 없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가게가 금세 없어지곤 해서 섭선하기도 해요. 모든 게 빠르게 쉽게 지니가 버리는 것 같아요. 아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구게 됐어요. 라이네 불컵에서 공연을 하는 친구, 건너관 회원에서 일하는 친구, 라이네 발경에서 가하게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한 잔뜩 남주는 친구를 등장,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이 정서적으로 감정의 이탈감이 있다고 말하는데, 전 그런 건 집 모르겠어요. 그것받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관계 지체가 정치적이거나 청사적인 차이로 생기는 문제들을 초월 하게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고양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마치고 작년에 일본으로 돌아갈 때 가장 그러웠던 건 한국의 '상겹살' 최 '월칠병' 이었는데, 이제 한국을 피나면 이 아메리카노 맛이 제일 그렇겠네요. 사실 관람에이 이난 아티스웨데 입장으로 한국에 와 작업을 하다 보니, 관광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지 되요. 전형적인 한국의 이미지가 아난 필상적이고 점이 넘치는 것을 많이죠. 제 작업이 관계성에 초향을 운만한 프로젝트 기간 중 이곳의 사람들과 맺게 된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었구요. 지권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 또한 이 '하우스 프로젝트'에 모함시킬 수 있겠네요. 저는 연(數의 항量 있어요.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가는 왜 안에서 다시 한국으로 율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언젠가 또 다시 만난 수 인권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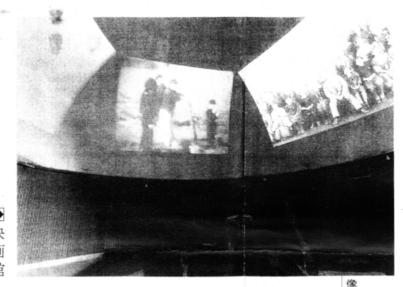
FOUND 63



Catalogue "FUKIAGE WANDER MAP" 2011
Publisher: FUKIAGE WANDER MAP Operation Committee
カタログ "吹上ワンダーマップ2011" 2011年
発行元: 吹上ワンダーマップ実行委員会



Catalogue "FUKIAGE WANDER MAP" 2011
Publisher: FUKIAGE WANDER MAP Operation Committee
カタログ "吹上ワンダーマップ2011" 2011年
発行元: 吹上ワンダーマップ実行委員会



年間使われ、現在、ドー

たけを残す。 今回、長船恒

雰囲気だ。一九五九年に作

られたプラネタリウムは数

る七間町。五十年前、このぶらシネマ通り』と呼ばれいますが、と呼ばれいますが、。 世 映画館 が立ち並び、。七 映画館 に

プラネタリウムに脚光

ワムでムービーを」と題し、像作家四人が「プラネタリ利さん突き―藤枝市=ら映

ム内にスクリーンを言

は曲面だけに包まれるようと明かす。スクリーンにこだわった理由を、長船さんは「人った理由を、長船さんは「人でれてしまっている。人間でれてしまっている。人間でれてしまっている。人間で、現代はそれが単純化層の。現代はそれが単純化層の。現代はそれが単純化層の感覚は本来、もっと重問の感覚は本来、もっと重問の感覚は本来、もっと重

1959年製のプラネタリウム。入り口には奥中章人 さん (静岡市) のインスタレーションを展示 ―静岡ピカデリー屋上

上は、昭和の時代に戻った「静岡ピカデリー」の屋はどれだけいるだろうか。あったことを覚えている人めったことを覚えている人映画街にプラネタリウムが映画街にプラネタリウムが

で見上げると、三つの映像だ。こたつに入り寝ころん

に投影するという本来の使期場支配人のこは「ドーム所有する静活の佐藤選人がより連動して見える。

は は のような 忘れられたよう 場所にも 面白みを持っても らえたら、 今後も 開放して みたい」と話す。 像作品が楽しめる=七間町のプラネタリウム こたつに入って、3面マルチスクリーンの映 たちが五目並べを楽しむ=静岡市の青葉シンボルロード 公園の中央に設置された約5≧四方の巨大な碁盤。若



	静岡ピカデリー			市役所静岡庁舎		
ときわ通り	●常磐公園	青葉シンボノ	V□-К 0	兵服町通	0	インゴ
		江川町通り	画 替 Un	tissu	0	シオメ
		浮月楼画廊○	通り	0	0	地下ション
	_	〇:展示場所(詳細		and the second s	争岡駅	

Article "Shizuoka Art Document 2007" 2007, Publisher: Shizuoka News Paper 新聞記事 "静岡アートドキュメント2007" 2007年 発行元:静岡新聞

芸術の秋です。常磐線沿線で、はしご酒ならぬ「はし ト」を楽しんでみませんか。常磐線は、始発駅の 上野をはじめ東京芸大の施設が点在し、 芸術家の卵が多 く住むとも言われる、アートな路線でもあります。11月 には柏、取手の両市で大きなアートイベントを予定。 「常磐線はやぼったい」なんてもろ言わせません。

た。秋を中心に沿線の4区や4市でアー たのが、JOBANアートライン協議会 が言うなど、自らがやぼったいイメージ トイベントが催される 路線のように思われがちだが、沿線のイ を持っているという。アートとは縁遠い を手にした男性が目につく」と地元住民 メージアップを図ろうと2年前に始まっ その上野が始発の常磐線。 カップ酒

館の外でもアートイベントが繰り広げら 催されるなど、世界の名作が集まる。東京都美術館では「フェルメール展」が開 至芸術大学もあり、芸大が中心となった 野タウンアートミュージアムでは美術 芸術の街として名高い東京・上野。

ASHWA と競え 今年は上野に負けないものがある

住んでいた美術家の竹本真紀さん(32) が集まって盛り上げてきた」という。 は、作品「トビヲちゃん」を街中の店の インティング」は恒例の企画。以前柏に ィスト30人が即興で絵を描く「ライブペ 化学反応を楽しもうというものだ。 を訪れた人が「でくわす」ことで、その 柏のテーマ「でくわす」は、日常の街に ートをとけ込ませ、住民とアート、柏 道路にキャンバスを並べ公募のアーテ 「de・Qu・wa・su」。今年の

商店会理事長で、JOBANアートライ と胸をはるのは、千葉県柏市の柏二番街 下地がない。だからこそ、ボランティア 北千住や取手と違って、柏にはアートの ンプロジェクト柏実行委員会代表の石戸 一郎さん(60)だ。「芸大の校舎がある

り、団地の壁に映像を映したり。普段の

「プールを足湯にした

長の渡辺好明芸大教授(53)は話す。 景色が一変します」。TAPの実施本部 カ月間、23組の作家が住み込んで作品を

プロジェクト(TAP)」のメーン会場

手はアート色に染まり始めている。 くもの」と渡辺教授は強調する りをしてきた。「協議会の常磐線=アート 売する「アート屋台」が並ぶという。 の方に喜んでほしい」と話す。「一過性奥健祐さん(26)は、「お世話になる団地 始めた。プールを足湯にする作品を作る が針金で作品を作ったことをきっかけに という発想が新鮮だった」と渡辺教授。 ではなく、住民と関係を作って続けてい クショップが始まっていた。奥中章人さ ん(27)が作品を制作中、集まった子ども 11月は、茨城で国民文化祭も行われ 子どもの歓声に振り返ると、即席ワー 「屋台」が並ぶという。取若手作家が作品を展示販



を広げて10年後にはアートが描かれた常 当の藤田とし子さん(50)は夢を語る。 磐線を走らせるのが目標です」と広報担 にはガイドツアーも。 柏の盛り上がり

上野



₿取手市の取手井野団地で、 クショップが始まった ₿柏駅近くでのライブペインティ に見入る通行人も=写真は昨年

Article "Toride Art Project 2008" 2008, Publisher: Asahi News Paper, Asahi Mullion 新聞記事 "取手アートプロジェクト2008" 2008年 発行元:朝日新聞、朝日マリオン

域文化賞を受賞。JOBANアートライ 会議の国交大臣賞、07年にサントリー地 を評価され、06年に地域づくり全国交流

TAPは今年で10回目。地域への貢献

ン協議会に先駆け、アートによる街づく